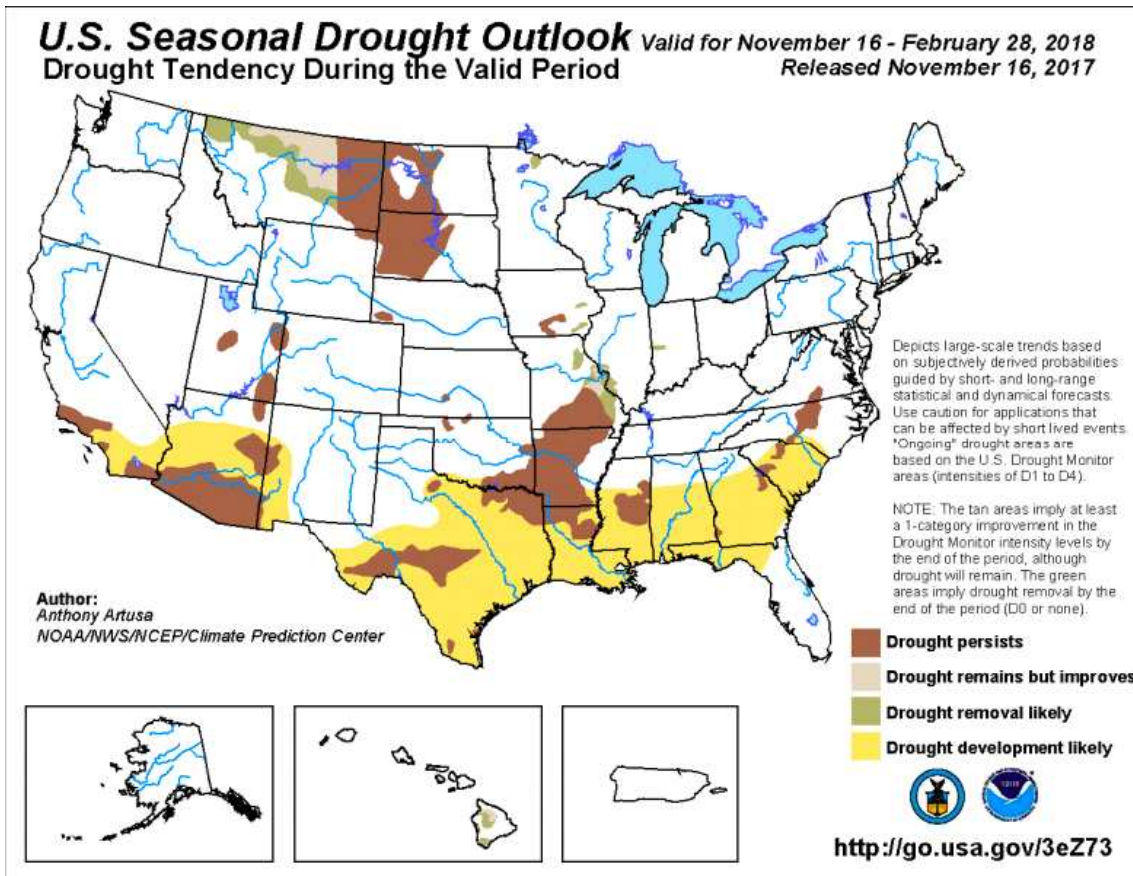


11월 2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47)

□ 미국 기후 현황(11/12~11/18)

동부의 주요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옥수수, 대두의 수확작업이 중단되었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 오하이오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1-3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다. 미시시피강 상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중남부, 대서양 연안 북부 등에서는 비가 조금 내렸다.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 북서부 등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제법 많이 쌓였다. 북서부의 일부 초지 가운데 지난여름 가뭄과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남부 등에서는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맑은 날씨를 보였다. 아리조나에서부터 텍사스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았고, 와이오밍과 사우스 다코타의 남서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5°F 정도 높았다. 반면, 동부의 오대호 일대와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5°F 정도 낮은 날씨를 보였고, 캐나다와 인접한 몬태나, 노스 다코타 등에서는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왔다.



□ 농업 현황 요약(11/06~11/12)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캘리포니아 북부와 오대호 인근지역, 오하이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서는 2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에서는 옥수수, 면화, 해바라기 등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미시시피강 서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2°F 이상 높았고, 미시시피강 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2°F 이상 낮은 날씨를 보였다.

□ 세계 기후 현황(11/12~11/18)

■ 유럽: 중부와 북부 유럽에서는 비가 내렸고,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대서양 중부와 동부 일대에서는 1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로 이탈리아에서 기승을 부리던 가뭄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그리스에서는 곳에 따라서 홍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면화 수확작업은 종료를 앞두고 있다. 영국, 프랑스 북부, 폴란드 등에서는 2~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스페인 북부에서는 지난 90일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포르투갈에서는 스페인 북부보다 비가 더 적게 내렸다. 스페인의 Valladolid, Castilla y Leon 등에서는 지난 1년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46%에 그치고 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지역과 러시아 서부에서는 주중에는 1~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기온은 평년보다 4°C 정도 높았는데, 최근 날씨의 영향으로 겨울밀의 생육상황은 매우 좋은 편이다. 우크라이나 남부 최남단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겨울밀 휴면(기온이 5°C 미만인 날씨)은 우크라이나 남부와 중부, 러시아 중부 일부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구소련(서부) 지역의 기후 현황은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중단되며, 2018년 3월 겨울밀의 휴면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 동아시아: 중국 남부와 남동부에서는 소나기가 한두 차례 내렸다. 양쯔강 서부 일대에서는 1~1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양쯔강 동부 일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한편, 중국 북동부 평원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겨울 동안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겨울밀은 휴면 상태를 유지한다.

■ 호주: 남부와 동부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지역에 따라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수확을 앞둔 겨울작물 재배지역에서는 비 피해에 대비한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면화 등 여름작물 재배지역에서는 이번 비가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서호주에서는 주 초반에는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지만, 주 후반에는 5~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서호주와 호주 남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2~4°C 정도 높았고, 동부 일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했다.



■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였다. La Pampa, Buenos Aires 북서부에서부터 파라과이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Buenos Aires 남서부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 중반까지 올라갔고, 북서부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C까지 오르기도 했다. Santa Fe, Entre Rio 등 Parana 강 하류 지역에서는 주 초반에는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까지 오르내렸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선선한 날씨를 보이면서 낮 최고기온이 20°C 초반에서 30°C 초반까지 오르내렸다. 최근 옥수수, 해바라기 등의 파종작업이 종료된 지역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16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81%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옥수수의 파종률은 47%를 기록했다.

■ 브라질: 중부와 북동부의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지난 주, 지지난 주에 이어 또다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동부에서부터 Piaui, Bahia 등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주정부에 따르면 11월 17일 기준 대두의 파종률은 91%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p 정도 낮은 수치이다. Mato Grosso do Sul 동부에서부터 Minas Gerais 남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후반에서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남부 지역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대두와 옥수수 파종 지역에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지만 밀 재배지역에서는 비로 인해 수확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13일 기준 대두와 옥수수의 파종률은 각각 88%, 100%를 기록했고, 밀의 수확률은 96%였다. Rio Grande do Sul에서는 11월 16일 기준 밀의 수확률이 92%를 기록했다.